

# 명상마을 · 빨리대학원대학 설립

##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사단법인 허가 취득... 수행자들 스스로 기금마련

10년 전부터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보급되며 수행기관만 3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남방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 Theravada Buddhism)가 본격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전통상좌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상좌불교한국명상원(이사장 묘원, 이하 명상원이) 8월 5일 사단법인 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명상마을 조성과 대학원 대학 설립에 나섰다.

명상원은 한국위빠사나선원 설립 5년 만에 선원을 다녀간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기금마련으로 법인화의 길을 열게 됐다. 수행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이뤄낸 이번 성과는 한국불교 수행 풍토에 새 반향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명상원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가평명상마을 조성 추진 중이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 1만여 평 규모로 조성 중인 명상마을은 집단 명상시설과 회원들을 위한 공공시설, 회원 개인주택 등으로 현재 주택지 분양 중이다.

명상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우 때 저니아 스님, 우 소버나 스님 등 상



묘원 법사.

좌부 불교의 선지식을 미얀마에서 초청해 지도법사로 모시고 위빠사나·탁발 수행, 전통불교의식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평 명상마을에는 법당, 식당, 도서관, 어린이 집과 함께 한방병원, 명상공원 등이 마련된다. 또 노후 보장·어린이 교육을 위한 시설과 천주교 신부·수녀, 외국인들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묘원 법사는 "명상마을은 회원 뿐

아니라 가평 일대 주민과 서울 시민 등 일대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 자연농법수행자들과 함께 천연 먹거리 등으로 자급자족도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며 "현재 명상마을은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자하는 의사, 교수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명상원은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해 가평 '빨리 대학원대학'도 설립할 계획이다.

묘원 법사는 "빨리 교육, 마음·몸·느낌·12년기 수행, 사마타 수행, 경전 강좌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빨리 경전 역경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언제나 수행이 가능한 공간과 기숙사 등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기심과 괴로움 치유 등을 위해 선원을 찾았던 3500여 회원들은 '정법의 맛'을 보고 간 이후에도 끊임 없이 선원을 찾고 있다. 특히 선원은 수행 외에 어떠한 불교의식을 행하지 않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종교를 떠나 다양한 종교의 수행자들까지도 찾아오고 있다.

묘원 법사는 "수행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장작을 오래 비벼야 불이 불듯 일정기간 번뇌 소멸을 위한 집중수행이 필요하다"며 "집중수행을 위한 수행처가 필요했고 이에 선원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명상마을 조성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러 법사는 "정법을 바탕으로 해왔기에 '부처님의 가르'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믿는다. 가피는 곧 정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수행법 전수를 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소승불교라 폄하돼 왔던 상좌불교는 테라(thera, 장로들)와 와다(vada, 말씀 혹은 교리의 합성어)로 '장로들의 교의(敎義)'라는 뜻이다. 빨리삼장(三藏)에 토대를 두고 수세기 동안 스리랑카·미얀마·태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02)512-5258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마음 비우면 ‘신심명’ 그대로 체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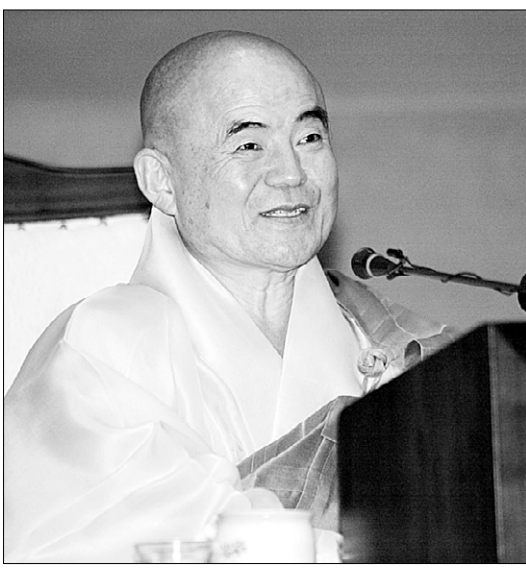
## 불교인재원, 해국 스님 ‘신심명’ 9일 첫 강의

“신심명(信心銘) 146 구절은 우주의 진리가 담긴 깨달은 이의 언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언어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뤄진 <신심명>은 자기 마음의 벽을 허물고 비운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요, 지혜의 문제다. 마음을 비우면 <신심명>은 그대로 체득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염상호)이 주최하는 중추 석종사 선원장 해국 스님(전국 선원수좌회 대표)의 <신심명> 첫 강의를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신심명> 강의에서 해국 스님은 화두참구 때의 어려움, 손가락 연비사건, 성철 스님과 공부한 이야기 등 구도 수행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해국 스님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간택함을 깨달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至道無難唯嫌揀擇 但眞愛愛洞然明白)”는



해국 스님.

핵심 첫 구절을 강조하며 첫 강의를 진행했다.

스님은 “도에 지극한 도가 있고 없다는 말에 속지 마라. ‘지도(至道)’는 완성된 도라는 것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지극한 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국 스님은 “지극한 도에 대한 이해는 ‘나’만 없으면 어렵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나’를 ‘나’로 아는 간택심(선택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 뿐이다. 우리는 선택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첫 구절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태양과 공기는 삼라만상에 조금의 차별도 불평등도 없는 무변허공이다. 중도는 양편을 초월한 것이고, 공은 있다 없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유원간택일 뿐”이라며 “모든 간택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간택에서 벗어나 기간 한다면 단박중에 통연명백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심명>은 선종의 제3대 조사(祖師)인 승찬(僧璨)스님이 불교의 핵심을 간명하게 밝힌 최상승 법문으로 팔만대장경이 함축돼 있는 정수 법문이다. 146구 584자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신심명>은 선종의 보전이 자 선시의 백미로도 일컬어진다.

강의는 10회에 걸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단, 동안기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02)735-2428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약탈 문화재 환수 기금마련전

## 종신회, 템플스테이정보센터서 9일 개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9월 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 갤러리에서 ‘해의약탈 문화재 환수 기금마련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 불교환경연대 현각 스님, 김의정 회장,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의원, 정도원 선진구 법사,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정법 스님은 “민족혼인 문화재 환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민간 차원의 환수운동이 끈기있게 이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정법 스님, 김의정

회장, 해문 스님 등 불교계 대표와 단체가 함께 평양, 개성, 동경 등에서 의기투합해 문화재 환수를 해 온 것은 민족적 수모를 씻어낸 일”이라며 “약탈문화재는 반환, 환수해야 할 것이지 약탈국으로부터 기증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조상들의 일이 미래를 제시하고 뿌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원해 달라”고 축사했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일본 공내청의 ‘조선왕실의례’ 미국보스턴 박물관의 ‘라마탑형 은제 사리구’ 환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과 주요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무자들의 불퇴전의 원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연 기자

# “사회공헌하자”... 공불련 10주년

## 임원 수련프로그램·단위기관 지원책 등 논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가 사회공헌

불자연합회로 도약을 선언했다. 공불련은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사업 안건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하복동 회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석 스님, 조계사 부주지 토진 스님, 성낙준 건설환경감사국장,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 등 10여 부처에서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불자회는 △임원 수련프로그램 개설로 단위기관 불자회 간부의 수련 프로그램 개설, 기관 불자회의 활성화, 배우자 프로그램 병행 운영 △10월 10~11일 창립10주년 기념 법회 △단위기관 불자회 결성 적극 지원, 결연 사업 활성화 방안 모

색 △연합회 조직 재정비를 위한 핵심기관 임원 유대강화, 연합회 재정 현안 논의 △특거노인 집수리 활동 등 공불련 봉사활동 활성화 △동계 해외 임원연수 미얀마 추진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하복동 회장은 “내부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공불련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등으로 불자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살려 공무원으로서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불자와 불교계가 합심해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석 스님은 “공무집행 각 부처 불자들과의 모인 활성화, 부처님 결성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 신행계시판

●미산 스님의 ‘마음수행학교’ = 서울 상도선원은 9월 17일~12월 19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상도선원에서 미산 스님의 ‘마음수행학교’를 진행한다. 수업은 마음수행교과와 함께 불교입문 강의, 기도, 연불, 주력, 사마타 위빠사나, 조사선과 간화선 등 이론과 실재를 함께 교육한다. 한편, 10월 17일에는 템플라이프가 진행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815-3391

●단기집중수행=서울 제마나와 선원은 9월 17~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단기집중

수행을 실시한다. 일일 수행, 토요일 집중수행, 철야정진 등의 수행에서 일정기간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한 단계 심화된 수행을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처음으로 수행에 접하는 초발심자가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 4만원, 운영회원 및 대학생은 3만원이다. (02)595-5115

●사경도반 10만결사 ‘금강경’ 사경법회=불교방송은 9월 23일부터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결사 <금강경>사경법회를 실시한다. 격월 출수담(9, 11, 1, 3, 5, 7

월) 넷째 수요일 오후 2시 큰스님 초청 사경일제 및 회향법회를 실시한다. 격월 짝수담(10, 12, 2, 4, 6, 8월)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도현스님의 사경 지도로 사경실습과 사경강의, 점검법회를 병행한다. (02)705-5301

●마가 스님의 ‘위빠사나와 자비명상’ =천안 호두마을은 9월 25~27일, 10월 23~25일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위빠사나와 자비명상’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7만 5000원이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41) 567-2841

#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강좌

###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9. 26(토) 오후 1시부터 ~ 9. 27(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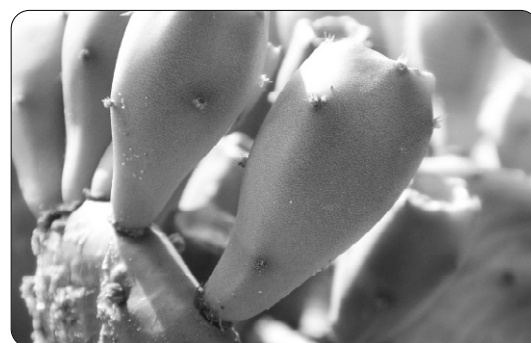
###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 천년사랑

###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